

## 高行健 노벨 문학상 수상의 중국적 해석

姜 鯨 求\*

<目 次>

I.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 경과	1. 중국정부와 관변단체의 해석 2. 해외 망명 민주인사들의 해석
II. 高行健 이전의 노벨 문학상 후보 작가군	3. 臺灣 정계와 문화계의 반응 4. 홍콩 정계와 문화계, 및 기타
III. 高行健 노벨 문학상의 중국적 의미화	IV. 결 론

### I.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 경과

高行健은 중국이 공산화되기 9년 전인 1940년 중국 江西省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은행원이었고, 모친은 항일극단의 단원으로 문화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노벨 문학상 수상식 답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의 글 쓰기는 어머니로부터 비롯된다.<sup>1)</sup> 이러한 최초의 글쓰기 기억과 그에 대한 모친의 칭찬은 《一個人的聖經》에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어 있다.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高行健의 모친은 그에게 일기 쓰기를 쓰도록 격려했으며, 그의 글을 읽고 칭찬해준 최초의 독자였다. 이에 대해 高行健은 스웨덴 국왕에게 올리는 답사의 첫머리에서 '站在您面前的這人, 還記得, 他八歲的時候, 他母親叫他寫日記, 他就這樣寫下去了, 一直寫到成年'이라 표현하였다. 「領獎答謝辭」《一個人的聖經》(臺北: 聯經, 1999), 479쪽.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됐다. 이제부터 붓으로 일기를 쓰자. 그러면 종이도 아낄 수 있을 테고. 그가 쓴 최초의 일기는 대강 이런 것이었다. ‘눈이 내려 땅은 온통 순백이다. 사람이 걸어가 발자국을 남기니 더러워져 버렸다.’ 이것을 어머니가 온통 사랑하여 전 집안사람들과 이웃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sup>2)</sup>

이후 그는 1962년 북경외국어학원 불문과를 졸업하고 外文출판국에서 번역 일에 종사하게 된다. 특히 그는 불문학 공부와 번역 일을 통해 당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었던 서구의 현대작품과 이론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가 1980년대에 일약 모더니즘의 기수로 떠오르게 된 것도 이러한 학습과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문학적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의 문화대혁명 체험이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의 습작노트를 모두 불태워야 했다. 그리고 1971년 농촌으로 내려가 교육에 종사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당시 남몰래 글쓰기를 계속했다고 한다. 고행전은 그것이 생명을 건 모험이었지만 한편으로 스스로의 인간성을 지키고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하였다고 회고한다. ‘표현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你表述才得以存在)<sup>3)</sup>’는 선언도 이러한 체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1975년 문혁이 끝나면서 그는 外文출판국에 다시 복귀하여 되고, 1979년에는 중국작가협회의 통역을 맡아 프랑스를 방문하게 된다.

이 시기, 즉 1980년에서 마지막 출국하는 1987년까지 그는 단편소설, 평론, 극본 등을 발표하였고 이것은 4권의 서적으로 출판되었다. 특히 그의 《現代小說技巧初探》은 당시 현실주의의 극복을 숙제로 내걸고 있던 중국문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

2) 他母親說，好了，以後就用毛筆寫日記吧，也省些紙張。……他的第一篇日記寫的大約是，雪落在地上一片潔白，人走過留下腳印，就弄髒了。是他母親宣揚的，弄得全家和他家的熟人都知道。《一個人的聖經》(臺北：聯經，1999)，4쪽.

3) 「文學的理由」《靈山》(臺北：聯經，1990)，544쪽.

해 그는 馮驥才, 李馳, 劉心武 등과 함께 80년대 ‘중국의 적막한 하늘에 떠오른 4개의 아름다운 연’<sup>4)</sup>으로 칭송 받으며 일약 선봉문학의 기수로 떠오르게 된다. 사실 이 시기 그가 소설, 희극 등의 창작에 필요한 이론적 작업을 통해 문단을 이끌었다는 점, 또 ‘小劇場話劇’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 그리고 《絕對信號》(1982 초연), 《車站》(1983 초연), 《野人》(1965 초연)과 같은 의미 있는 작품을 내놓았다는 점 등에 있어서 그는 劉心武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야 옳다. 그야말로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전방위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1983년 《車站》이 소위 ‘정신오염 숙청 운동’의 과정에서 건국 이후 가장 해로운 희극으로 지목되고 공연 금지되는 시련을 맞게 된다. 이어 1985년의 《野人》도 비슷한 통제를 받고 되고, 나아가 1986년 《彼岸》이 판금 되면서 그의 중국에서의 작품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내에서의 이러한 시련이 오히려 그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高行健은 1987년 독일에 나갔다가 익년 정치난민의 신분으로 파리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1989년에는 천안문 사건에 대한 항거로 공산당을 탈당하고, 10년 뒤인 1998년 프랑스 국적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프랑스에서 그는 1989년 《靈山》을 완성하고, 1999년 《一個人的聖經》을 출간하는 등 창작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스스로도 ‘프랑스에서의 13년이 대륙에서의 10년의 삶과 같다’<sup>5)</sup>고 술회한 바 있다. 그의 작품은 맘퀴스트(Goran Malmquist)의 번역으로 스웨덴에 번역 소개된 데 이어,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사회에 널리 번역되어 있고, 현재 유

- 4) 中國寂寞空曠天空中飛起的四個漂亮風箏. <高行健諾貝爾獎, 全球華人反響熱烈>  
 5) 他離開中國在法國的十三年所創作的作品及所做的事, 相當於大陸十輩子. <高行健專集>(intermargins.net/Forum/2001%20Jan-June/Gao%20Xingjian/gx02.htm) 이 논문에서 인용된 인터넷 자료들은 모두 2005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검색되고 출력하여 열람된 것으로 대부분의 자료는 남아 있지만 일부 자료는 사라진 것도 있음을 밝힌다. 원고 작성의 편의상 인터넷 주소는 참고 문헌에 일괄 밝히기로 한다.

럽의 각 대학에 高行健 관련 강좌가 개설되는 등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그가 중국작가였다는 점과 큰 관련이 있다. 그것은 스웨덴 문학원의 맘퀴스트가 미국에 망명중인 曹長靑과의 전화 대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벨 문학상 100년 간 중국어 작가가 없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저상된 중국독자의 감정을 고려한 결과’<sup>6)</sup>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에 망명중인 茉莉는 ‘중국작가의 수상은 80년대 이후 스웨덴 문학원의 목표였다’<sup>7)</sup>고 단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핵심은 高行健의 문학이었다. 스웨덴 한림원의 공식적인 평을 보자.

서기 2000년 노벨 문학상을 중국어 작가 高行健에게 수여합니다. 그 작품이 세계적으로 통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깊은 통찰력, 세밀하고도 뛰어난 언어 등으로 중국의 소설예술과 희극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점을 표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sup>8)</sup>

결국 張旭東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필요조건은 중국이었고, 충분조건은 작품’<sup>9)</sup>이었던 것이다. 특히 高行健

- 
- 6) 有沒有因爲百年來沒有漢語作家得獎而考慮中國人的因素? --答:那當然考慮到, 當然考慮到. 曹長靑, <評高行健作品系列之十一:對中國當代文學的誤讀--訪馬悅然>
- 7) 這次諾獎評選, 還由于瑞典文學院自八十年代以後設的新目標, 即把考察的範圍拓展到更廣闊的文學領域, 這是他們的一種要覆蓋「全世界的文學」的願望. 茉莉, <高行健離諾貝爾理想標準差多遠>
- 8) 西元二000年諾貝爾文學獎授與中文作家高行健, 「以表彰其作品放諸四海皆準的價值, 刻骨的洞察力和精妙的言語, 爲中文小說藝術和戲劇開闢了新的道路」. 瑞典皇家學院, 「西元二000年諾貝爾文學獎得獎頌辭」《靈山》(臺北: 聯經, 1990), 529 卒.
- 9) 也就是說, 高獲諾獎的必要條件和根本前提是他的中國背景. 但這並不構成他獲獎的充分條件. 而這個充分條件, 形而下言之, 是高的作品是否投合瑞典皇家學院評審委員會的充滿偶然性甚至武斷的趣味和程式. 形而上而言, 是高的“中國作家”身分是否是西方主流價值觀, 意識形態和政治理念能夠接受和希望看到的“中國作家”. 張旭東, <承認的政治>

의 작품은 스톡홀름대학의 중문과 교수인 로덴(Torbjorn Lod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특색을 갖춘 세계문학’<sup>10)</sup>의 모델이 될만한 것이었다. 여기에 그가 민주인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활동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탈의식형태의 경향, 작품에 농후한 중국 문화적 색채, 민간형식에 대한 조예, 프랑스라는 활동무대, 서양적 형식과 동양적 내용의 조화 등이 모두 그의 수상에 금상첨화적 조건이 되어 주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그가 스웨덴 문학원의 18명 종신회원 중 중국어에 뛰어난 맘퀴스트의 인정과 추천을 받는 행운을 만났다는 점은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

## II. 高行健 이전의 노벨 문학상 후보 작가군

중국인의 노벨상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高行健 수상 이전 후보군에 올랐던 작가들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000년 高行健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까지 수상자 후보로 언급되거나 오르내린 중국 문학가는 대략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어 작가의 후보추천은 세계 각국의 대표적 문학단체나 우수한 대학의 중문학과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보다 더 많은 작가들이 후보로 추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추천 사실이 알려진 작가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魯迅, 林語堂, 巴金, 梁實秋, 茅盾, 丁玲, 沈從文, 王蒙, 北島, 莫言, 李銳, 余華, 蘇童, 王朔, 賈平凹, 張潔, 金庸, 劉心武, 韓少功, 李敖, 顧城, 楊煉, 鄭義 등이 그들이다.

이 중 魯迅은 1927년 스웨덴의 저명한 탐험가 헤딘(Dr.Sven Hedin: 1865~1952)이 上海를 방문하여 劉半農과 함께 후보추천 문제를 논의하

10) 로덴 교수는 茉莉와의 토론에서 작품 《靈山》이 ‘중국특색을 갖춘 세계문학’이라 할 수 있다(我認爲, 我們可以把它稱爲一部有中國特色的世界文學作品)’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茉莉, <高行健離諾貝爾理想標準差多遠>

다가 魯迅 당사자의 완곡한 거절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정식후보로 추천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林語堂은 중국과 서양의 문화적 교류에 적극 공헌한 인물로 일찍부터 서양에 알려졌고, 1975년에는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펜클럽 부회장에 선출된다. 1968년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川端康成의 후임이었다. 당시 국제펜클럽에서는 그를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하였는데, 이후에도 수차례 후보로 추천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巴金은 일찍이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었거니와 2001년까지 정식으로 추천되었는데, 그 작품에 나타난 ‘인간성과 인류의 존엄성에 대한 집요한 탐구와 높은 해석’이 후보추천이유<sup>11)</sup>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래의 문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작품’을 중시하는 노벨의 기준에 의하면 그는 이미 수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작가로 이해되고 있다.

沈從文은 수상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림원의 맘퀴스트는 소박하면서도 생명의 본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沈從文의 작품을 좋아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망으로 후보추천에서 자동 제외되었다.

老舍 역시 沈從文과 비슷한 경우의 작가이다. 그의 아들이며 현재 ‘중국 현대문학관’의 관장인 徐乙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川端康成이 수상한 1968년의 수상자는 원래 老舍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웨덴 한림원에서 중국을 방문하여 老舍가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을 알고 수상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徐乙의 이 말은 학자들 간에 신빙성을 의심받고는 있지만 老舍가 여러 차례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1990년 미국으로 망명한 시인 北島는 10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되면서 수상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가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나친 정치색, 엘리어트와 유사한 시 세계, 후보로 자주 거론되었으나 계

11) 他的文學創作奠定了享譽世界崇高聲望和國際文化界尊崇的優異基礎，他對人性和人類尊嚴的執著探討和神聖理解，已經被載入了當代中國文化和人類文化的史冊。〈諾貝爾文學獎對中國很重要嗎？〉

속 탈락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王蒙 역시 수상가능성이 높은 작가의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평론가들은 2000년의 최종후보로 高行健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것이 王蒙이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의 정치적 배경, 세련된 어휘사용에 비해 빈약한 내용 등이 그를 노벨 문학상에서 멀어지게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北島가 해외 망명 민주인사들의 바람을 업고 있는 작가였다면, 王蒙은 중국의 문학계와 독자들, 심지어 정부에서 성원하던 작가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수상 가능성이 높은 두 작가가 대립적 정치배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탈정치적인 高行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莫言, 余華, 賈平凹, 王朔 등은 인기 작가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었지만, 바로 그 높은 대중성 때문에 노벨 문학상과 가까워질 수 없었다고 평가된다. 金庸 역시 대중적 흡인력에 비해 새로운 문학적 시도가 없다는 점에서 후보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銳와 鄭義는 2000년 직전에 자주 언급된 작가인데, 李銳는 맘퀴스트가 선호하였기 때문이고, 鄭義는 일본의 大江健三郎이 적극 추천한 작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 작가 李敖의 경우는 약간 특별하다. 그는 당대의 대문필가이기는 하지만, 소설이나 시와 같은 본격문학작품은 거의 없는 편이었다. 그래서 그가 장편소설 《北京法源寺》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되었던 것도 정치적 목적에 의한 기획의 결과였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李敖가 자신의 노벨 문학상 후보추천 사실을 대만의 총통선거에 적극 활용하였던 것을 보면 그러한 의심이 근거가 있는 것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Ⅲ. 高行健 노벨 문학상의 중국적 의미화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각 진영과 개인의 평가에는 정치적

의미화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것은 高行健의 문학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를 압도한다. 중국인에게 있어서는 노벨문학상의 ‘정치적 의미가 문학적 가치보다 클 수 있다’<sup>12)</sup>고 한 夏星의 말이 전혀 엉뚱한 지적은 아닌 것이다. 각 진영과 개인의 평가를 구체적 살펴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중국정부와 관변단체의 해석

중국정부와 관변단체, 그리고 이와 입장을 같이 하는 개인들의 평가를 살펴보자. 高行健의 수상에 대해 일본을 방문중이던 중국 총리 朱鎔基는 ‘高行健이 중국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이라는 점이 아쉽다’<sup>13)</sup>는 말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朱鎔基의 답변과 홍콩 <東方日報>의 보도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朱邦造는 이러한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고 정정한다. 즉 朱鎔基가 기자의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대변인이 朱鎔基의 답변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사실이 없었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초점을 흐리는 언론전략을 통해 중국정부는 高行健의 수상을 자신들과 무관한 객관적 사실로 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나아가 ‘노벨 문학상의 결정에 정치적 기준이 작용되었다’<sup>14)</sup>는 朱鎔基의 비판적 답변도 중국의 문학가가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불만의 표현에 불과하다. 사실 중국정부는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장에 중국대사를 불참시켜 약간의 불편함을 표현하였을 뿐 항의문서를 전달하거나 대사관을 철수하는 등의 적극적 항의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高行健의 노벨상 수상을 ‘문학표준이 아닌 정치표준에 의한 것’<sup>15)</sup>으로 폄하하면서도 다른 경

12) 夏星, <高行健獲諾貝爾文學獎的內幕揭秘>

13) 朱鎔基說,他很遺憾,因為得獎的是法國人,而不是中國人.<新聞剪貼>

14) 對於評選是否有政治目的,他說,這是自然的,文學獎的評價有一定的人文甚至政治背景,這不值得一評.<新聞剪貼>

15) 他不是對中國文學有巨大影響的作家.<高行健的榮譽引發爭論>

로를 통해 축하의 뜻을 표현하는 중국작가협회의 태도에도 잘 드러난다. 사실 작가협회는 정부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제국주의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고행건에게 사르트르처럼 수상을 거부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극단적 언사와 달리 그들은 비판의 창 끝을 노벨 위원회나 高行健에게 향하지 않았다. 작가협회의 모호한 태도는 이후 2002년 중국작가협회의 대표단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캐나다 국제 작가축제」에 중국 대표로 참석하였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당시 방문단의 단장이었던 작가협회 蔣子龍은 기자회견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高行健보다 우수한 작가가 많지만, 高行健의 수상은 확실히 작가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 기쁜 일’<sup>16)</sup>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그것은 공식적 논평과 개인적 입장표현을 뒤섞어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었던 朱鎔基와 중국 외교부의 언론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중국정부에서는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공식적 항의표시나 대사관 철수 등 있을 수 있는 외교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高行健은 北島나 劉賓雁과 같은 반정부 운동의 상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상 이후의 정치적 효과를 통해서도 잘 확인된다.

우선 객관적인 상황에서 高行健의 수상은 다양한 중국인 사회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였다. 즉 미국의 원로 중국학자 夏志清이 지적한 바와 같이 高行健은 중국인이지만 ‘대륙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며,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며, 더구나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활동하는 작가’<sup>17)</sup>라

16) 他在中國作協受到培養，因此無論如何他的獲獎對於作協是一件得高與的事。雖然中國的確有比高行健更出色的大師級作家，但高的獲獎使中國作家對諾貝爾文學有了更切現實的體驗。他的這番談話與當初中國官方對高行健獲獎時發表的評論相去甚遠。〈星島日報溫加華加西版〉(2002.9. 25)

17) 李歐梵：夏公說得有道理。不是大陸，也不是臺灣。所以可能看上他這一點。他雖然非常西化，但不美化。〈高行健獲獎三人談——李歐梵，王曉明，陳建華〉(2000年10月13日)《二十一世紀》，2000年 12月號(第62期)。

는 점은 더할 수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高行健이 중국인이면서 정치적 풍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작가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의도와 정치행위를 극도로 기피하는 高行健의 태도 또한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수상 이후 노벨상의 권위를 이용하여 중국정부에 대한 비판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정치가가 아니다’<sup>18)</sup>고 답변한 高行健의 태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정부와 관변단체의 모순된 반응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책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高行健 불온시는 高行健 띄우기’<sup>19)</sup>라는 茉莉의 비판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만큼 그 정치적 효과가 민주인사들이 보기에 불만스러웠던 것이다.

## 2. 해외 망명 민주인사들의 해석

그러면 위에서 잠시 언급한 茉莉를 포함하여 해외 망명인사들의 반응과 논평을 살펴보기로 하자.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6.4의 주역이었던 王丹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高行健의 수상은 당연한 일’<sup>20)</sup>이며 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대답하였다. 비슷한 차원에서 劉賓雁도 축하와 함께 긍정적 평을 아끼지 않았고, 劉再復은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예상한 일’<sup>21)</sup>이라 보았다. 특히 劉再復은 高行健의 희극, 소설, 이론, 회화의 전 측면에 걸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一個人的聖經》에 대한 다음의 평가를 보라.

18) 我是個藝術家，對政治深深厭惡。我也沒有什麼政治使命。我幫助不了中國。新聞剪貼，〈高行健：我幫助不了中國〉

19) 因為中國政府反高就偏偏捧高。茉莉，〈曹長青評高行健的意義〉

20) 王丹十二日在波士頓家中接受電話採訪時說，他在傳真了一封道賀信給高行健，恭賀他榮獲這項殊榮，……高行健獲得文學獎，是當之無愧的。《華夏文摘增刊——高行健獲諾貝爾文學獎特刊》(2000年10月14日)第234期

21) 高行健這次得到諾貝爾文學獎，我感到特別高興，也是在我的意料之中。《華夏文摘增刊——高行健獲諾貝爾文學獎特刊》(2000年10月14日)第234期

《一個人的聖經》은 20세기 후반 중국의 가장 우수한 소설로서 현실의 본질을 다루면서도 시적 분위기가 넘친다. 그것은 현실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현실을 초월하고 있다.<sup>22)</sup>

劉再復은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高行健의 소설에 ‘極端現實主義’의 명칭을 부여한다. 그것은 ‘현실의 표층에 미끄러지고 마는 낡은 현실주의와는 달리 현실의 심층에 깊이 들어가는 소설’<sup>23)</sup>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劉再復의 평은 대체적으로 高行健 작품의 문학적 측면에 무게를 둔 것이기는 하나, 중국인과 중국사회의 비참한 내적·외적 현실을 남김없이 표현하였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劉再復은 高行健의 분명한 탈정치성을 다시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무리한 시도<sup>24)</sup>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劉賓雁은 문학적 측면과 정치 사회적 측면을 나누어 평가한다. 그는 高行健의 문학적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밝힌다. ‘작가는 어쨌든 사회적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sup>25)</sup>는 것이었다.

반면 楊煉은 이것을 망명의 승리로 보았고, 파리에 망명 중인 鄭寶娟은 高行健의 정치적 태도를 들어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철저한 결별, 독재중국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

22) 《一個人的聖經》則是“20世紀下半葉中國最優秀的小說，接觸到現實的根本，非常有詩意，不但進入現實，而且超越現實。”〈文學批評家劉再復對高行健作品的評介〉香港《明報》(2000.10/15)

23) 這種現實主義的方法的局限，在於它總是活動於現實的表層，而無法進入現實的深層。……這條路，我姑且稱它為「極端現實主義」之路。劉再復，《一個人的聖經·跋》(臺灣：聯經，1999)，453쪽.

24) 필자는 <高行健의 《一個人的聖經》 탐색>에서 ‘잔인한 정치적 현실에 의해 「나」가 살해되어 버렸다’는 劉再復의 현실주의적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필자, <高行健의 《一個人的聖經》 탐색>(《중국현대문학》, 제31호, 2004.12), 249~273쪽 참조.

25) 劉賓雁表示，如果只強調創作是純個人的行爲，而沒有社會關懷和社會責任感，他實在很難苟同。袁曉康，〈冷的文學，熱的作家諾貝爾文學獎得主高行健〉

하지 않음, 정치적으로 물러날 길을 남겨두지 않는 高行健의 태도<sup>26)</sup>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貝玲 역시 ‘노벨 위원회가 쫓대 있는 작가를 선택하였다’<sup>27)</sup>고 함으로써 역시 그 정치적 태도를 평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은 高行健과 중국대륙의 갈등이 노벨 문학상 수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高行健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수 망명 지식인들의 대체적인 반응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高行健이 수상 이후 보여준 극단적 탈정치성은 일부 민주인사들이 보기에 대단히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高行健의 수상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반응은 茉莉와 曹長靑 등 젊은 망명 민주인사들에게서 발견된다. 이들은 지속적이며 심도 있게 高行健의 수상에 대해 비판적 글들을 발표한다. 특히 스웨덴에 망명 중인 茉莉는 高行健의 수상식장에 참여하여 노벨 위원회에 정식 항의서를 제출하고<sup>28)</sup>, 미국의 曹長靑이나 북경의 崔衛平 등의 高行健 비판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현<sup>29)</sup>하는 등 高行健과 노벨 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이끌고 있다. 茉莉의 비판은 노벨의 이상주의에 대한 해석과 高行健 비판, 그리고 이기적 개인주의자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 노벨 위원회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된다. 우선 그녀는 <面對瑞典文學院的傑作——一個犯衆怒者的思索>, <瑞典文學院‘不在乎’諾貝爾遺囑了嗎?> 등의 문장을 통해 노벨의 이상주의 정신과 그에 기초한 노벨 문학상의 역사를 밝히는데 힘을 쏟는다. 그녀는 노벨주의, 혹은 노벨의 이상주의를 반파쇼 정신으로 요약한다.<sup>30)</sup>

26) 他徹底和中國決裂，絕不回到極權下的中國，不作騎牆派，不爲自己預留後路。張筱雲，〈誰有資格得諾貝爾文學獎〉

27) 這是在二十世紀的最後一年對中國現代文學的肯定……他們選擇了最有骨氣的作家。〈中國大陸作家反映〉《華夏文摘增刊——高行健諾貝爾文學獎特刊》第234期(2000年10月14日)

28) 남편 傅正明과 함께 일종의 항의서인 <瑞典文學院誤導中國作家>(茉莉, 傅正明)를 노벨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전후경과에 대해서는 茉莉, <面對瑞典文學院的傑作——一個犯衆怒者的思索>

29) 茉莉의 이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曹長靑評高行健的意義>와 <崔衛平退稿信帶來的啓示>에 자세하다.

茉莉는 이러한 노벨의 이상주의 정신을 그의 유언과 술제니친, 大江健三郎 등 역대 수상자들의 연설에서 찾아내어 해석한다. 그녀의 원리론적이며 학술적인 작업은 高行健의 수상자 선정이 원칙에부터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sup>31)</sup>이었다. 그러나 맘퀴스트는 ‘이상주의의 추구하고 관련하여 노벨 위원들 사이에 어떤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따라서 노벨 위원회는 ‘작가의 이상추구를 중시하지 않는다’<sup>32)</sup>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高行健의 수상을 비판하는 茉莉의 작업은 토대에서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묻는다. 노벨 문학상이 세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노벨 정신의 해석권은 18명의 종신회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의 문학인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중국인도 노벨 문학상에 참여하고 해석할 권한을 갖는다’<sup>33)</sup>는 주장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과연 어떤 것이 중국인의 의견인가 하는 점에 이르면 그녀의 주장은 아무런 구체적 내용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극단적일 경우 그녀가 말하는 중국인의 의견은 결국 그녀 자신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중국 독자의 있을 수 있는 반응’<sup>34)</sup>을 고려하지 않은 수상자 선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한 崔衛平의 경우처럼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는 허구의 의견으로 자기 의견의 근거를 삼고 있기 때문이다.

30) 茉莉, <反極權·諾貝爾文學獎的本質>

31) 그런데 茉莉의 이러한 목적하에 진행된 노벨의 이상주의에 대한 천착과 정리는 맘퀴스트와의 대담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스웨덴 문학원의 18명 종신위원의 한 사람이자 중국문학의 추천과 해석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맘퀴스트는 그녀와의 대담에서 노벨 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이상추구를 크게 중시하지 않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茉莉, <瑞典文學院‘不在乎’諾貝爾遺囑了嗎?> 참조.

32) 但是對這個理想傾向, 現在瑞典文學院就不大在乎, 不大管這個了. 茉莉, <瑞典文學院‘不在乎’諾貝爾遺囑了嗎?>

33) 中國人有權參與解釋諾貝爾. <面對瑞典文學院的傑作——一個犯衆怒者的思索(茉莉)>

34) 對這些可能的讀者其可能的反應, 不加考慮. 徐友漁, <徐友漁致函崔衛平>《多維周刊》第42期(2001.2)

茉莉의 高行健에 대한 비판은 작가의 사회·정치적 책임에 관해 묻는 일종의 ‘정치 윤리와 연계된 도덕비평’이다. 茉莉의 문제는 그녀가 자신의 관점을 신성화, 절대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녀는 정치체제를 선(민주주의)과 악(공산주의)로 나누고,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지옥과 같은 중국의 상황에서 달아나 개인의 자유만을 말하는 高行健을 질책한다.

나아가 악의 정권에 대한 비판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결국 그것에 협조하고 있는 高行健에게 노벨 문학상이 주어짐으로써 ‘중국의 작가들이 현실을 도피하여 은일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sup>35)</sup>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중국의 민주운동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본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 曹長靑은 茉莉와 함께 高行健과 그의 문학에 대한 비판을 이끌고 있는 주요인물이다. 특히 그는 高行健 작품의 저열성을 밝히는 15편의 논문<sup>36)</sup>을 시리즈로 발표하였는데 대부분의 글은 2001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쓴 것이다. 적극적이면서도 집요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그의 글의 핵심은 高行健의 문학이 정치적 측면에서나 문학적 측면에서 공히 수준미달임을 지적하는데 있다. 그 중 정치적 비판은 茉莉와 관점을 같이 하는데 曹長靑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맘퀴스트와 전화로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정리하여 소개<sup>37)</sup>한 바 있다. 이 대화에서 曹長靑은 高行健 문학의 수준에 대해 질문한다. 중국과 세계를 포함하여 당대 최고의 작가들에 비해 高行健의 문학이 더 우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맘퀴스트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세계 최고의 문학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대답한다.

35) 這次評選將誤導中國作家走向逃避現實的隱逸之途的問題. 茉莉, <面對瑞典文學院的傑作——一個犯衆怒者的思索>

36) 曹長靑의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이 글들은 <評高行健作品系列之一: 皇帝的新衣:《靈山》>(2001-01-02)으로 시작하여 <評高行健作品系列之十五: 獸性對待假道德>(2001-02-28)까지 이어진다. 거의 2개월간 高行健의 비판적 분석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37) 曹長靑, <評高行健作品系列之十一: 對中國當代文學的誤讀——訪馬悅然>

노벨 문학상은 세계 일등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작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高行健을 세계 최고의 작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작가는 너무 많아 아마 몇 백 명은 될 것입니다.<sup>38)</sup>

노벨 문학상이 문학적 기준에 의해 선정된다고 할 때 선정된 작가가 과연 세계 최고의 작가인가 하는 질문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노벨 위원회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학의 평가는 독자와 평론가의 취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상자의 최종 결정은 문학원의 18명 종신회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曹長靑은 茉莉와 마찬가지로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노벨상이 세계인의 평가를 받는 상이라면 세계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같은 논리에서 중국어 작품에 대해서는 중국 독자와 평론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맘퀴스트는 단순 명쾌하게 대답한다.

18명의 종신회원 모두는 스스로 문학상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결정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sup>39)</sup>

맘퀴스트가 명확하게 밝힌 대로 노벨 문학상은 스웨덴 문학원에서 주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상의 하나일 뿐이다. 그 세계적인 권위는 노벨 위원회의 안목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세계적인 동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曹長靑 등이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들의 평론은 高行健의 수상이 중국의 민주운동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

38) 諾貝爾文學獎不是一個世界冠軍，我們不是選世界最好的作家，我們怎能說高行健是世界上最的一個作家？很多，有幾百個。曹長靑，〈評高行健作品系列之十一：對中國當代文學的誤讀——訪馬悅然〉

39) 包括18個院士，是我們決定誰得到諾貝爾文學獎，我們完全不聽別的人說什麼，這個我們不在乎，誰也不能影響我們。曹長靑，〈評高行健作品系列之十一：對中國當代文學的誤讀——訪馬悅然〉

한다. 그들에게는 高行健 수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高行健의 문학이 2류에 불과함을 증명하고, 그의 정치적 무책임성과 비도덕성을 드러내며, 노벨 문학상의 불공정성을 끝없이 지적하였던 것이다.

해외에 망명한 반정부 인사들은 그들의 정치적 행위와 처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인정을 바라고 있다. 그들에게 노벨 문학상은 이러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6.4 이후 망명인사들의 뒤편이라고 생각되던 평화상이 달라이 라마에게 돌아가고<sup>40)</sup>, 2000년에는 또다시 그것이 高行健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高行健이 6.4와 관련하여 저항운동을 했다는 스웨덴 문학원의 발표에 대해 茉莉가 거세게 항의하였던 것<sup>41)</sup>도 이 때문이다. 夏寧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가로챈 高行健이 ‘세계를 향해 외칠 기회가 왔는데도 자기의 깃털이나 고르는 새’<sup>42)</sup>로 남아 있는데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밖에 陳映眞, 陸達誠 등이 앞에서 살펴본 망명 민주인사들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 3. 臺灣 정계와 문화계의 반응

그러면 臺灣에서의 반응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臺灣에서의 高行健에 대한 평가는 馬森에서 비롯된다. 특히 그가 <靈山>의 서문으로 내

40) 사실을 말하자면 당시의 평화상 후보에 6.4의 주역들과 달라이 라마가 올랐고, 결국 여러 가지 조건에서 최종 수상자로 달라이 라마가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6.4의 주역들은 중국의 정치적 압박과 그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우려가 없었다면 그 상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상이었다고 믿고 있다. 자세한 것은 夏星, <高行健獲諾貝爾文學獎的內幕揭秘>

41) 其中提到筆者曾經公開批評的一個要點, 即新聞公報中寫到的有關高行健作品也刺痛民主運動的問題. 茉莉, <面對瑞典文學院的傑作——一個犯衆怒者的思索>

42) 向全世界發出他們的聲音, …… 這一次終於來臨了. 然而, 他們驚訝地發現, 這個幸運的人在講壇上發出的是故作超然的聲音. 彷彿一隻攀上高枝的鳥, 低首梳理著它的羽毛. 夏寧, <諾貝爾的神話>

놓은 <藝術的退位與復位>는 질과 양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논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1990년에 쓰인 글이므로 이 글의 주제인 노벨 문학상의 중국적 의미화와 무관하다 할 수 있다. 나아가 高行健의 수상 이후 대만 언론이 들끓던 시기에도 馬森은 成功대학에서의 노벨 문학상 관련 특강에서 高行健 문학의 내용 및 특징에 관해서만 언급하는 객관성을 유지하였다.<sup>43)</sup> 그가 고행건의 문학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객관적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臺灣대학 희극연구소 소장이었던 胡耀恒도 馬森과 비슷한 문학적 감식력으로 일찍이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예언<sup>44)</sup>한 바 있다. 그러나 노벨 문학상 이후의 胡의 글에 특별한 중국적 해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陳水扁을 포함한 정치인, 臺灣 문학의 세계화에 대해 고민하는 지식인들은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의미화에 힘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원래 高行健의 문학작품들은 馬森 등의 추천을 통해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에 이미 臺灣에서 출간되어 있었다. 즉 소설 <靈山>이 1990년에, <一個人的聖經>이 1999년에 출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모두 臺灣의 문학계에 영향력이 큰 馬森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는데, 특히 <靈山>의 출간은 스웨덴 한림원의 맘퀴스트가 馬森에게 추천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의 단편소설과 희극작품들은 노벨 문학상 수상 직후인 2000년과 2001년에 집중적으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靈山>은 출간 이후 10년 간 3,000부가 팔렸고<sup>45)</sup>, <一個人的聖經>은 출간 이후 노벨 문학상 수상직전까지 200부가 팔렸다. 그러나 수상소식이 알려진 직후 4개월 사이에 <靈山>만 12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 일시에 臺灣 사회에 일종의 高行健 신드롬이 일어난 셈이다. 臺灣에서의 高行健 평가는 그를 색정주의

43) <馬森教授談高行健——跨世紀的榮耀>

44) 甚至臺灣大學戲劇所所長胡耀恒早在數年前, 即已豫言高行健將會得獎. 袁曉康, <冷的文學, 熱的作家諾貝爾文學獎得主高行健>

45) 曹長青의 聯經出版 통계인용에 보면 <靈山>은 출간 후 5년 간 1천 부가 팔렸고, 이후 반값에 재고 처리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3,000부는 이 재고 처리분까지 합한 것으로 보인다. 曹長青, <朝拜高行健——媚俗的港大媒體>

문필가로 공격하는 丘德眞과 같은 예외<sup>46)</sup>가 있기는 하나 石鳴의 지적처럼 대체적으로 긍정적<sup>47)</sup>이다. 심지어 매체의 高行健 평가는 曹長靑이 비웃었던 것처럼 거의 ‘승배와 아침’<sup>48)</sup>에 가까운 것이기까지 하였다.

그 중 臺灣에서 高行健의 가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정치인들이었다. 특히 臺北시에서는 高行健을 臺北시 명예시민으로 임명한 뒤, 그를 초청하여 강연회와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것은 공중파를 타고 전국에 방영되었다. 臺北시와 臺灣 정부에서는 그를 ‘대만의 자랑’, ‘중국어문학의 성취’<sup>49)</sup> 등으로 찬양하였다.

한편 臺灣 총통 陳水扁은 이러한 정치적 수사 외에 高行健의 소위 ‘의식형태로부터의 독립’ 주장을 높이 평가하여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정치도 문학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버리고, 의식형태간의 싸움을 버려야 하며, 대륙과 대만의 포괄적 문제처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sup>50)</sup>

高行健의 문학적 주장이 臺灣독립주장과 구조적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陳水扁의 발명이라 할만하다. 陳의 臺灣독립 주장은 대륙과 대만으로부터 함께 공격을 받아왔다. 그것이 민족주의적 정서와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陳이 보기에 그것은 의식형태의 싸움일 뿐이며, 臺灣의 생존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식형태와의 싸움을 통해 문학이 생존할 수 있다는 高行健의 주장은 그의 탈민족주의적 주장에

46) 丘德眞, <高行健, 君子不必自強不息——諾貝爾獎得主的頹廢書寫>

47) 大家基本上是以積極, 正面的態度看待高行健的影響, 這種共識, 無疑會在精神上給新華文學創作帶來推動力量, 同時也會給新華文壇注入一些刺激因素. 石鳴, <回到創作本位——正視語言純度, 也從高行健獲獎談新華文學>

48) 曹長靑, <朝拜高行健——媚俗的港臺媒體>

49) 代表了華語文學的成就, 得到國際認定. …… 高行健的成就, 是臺灣的驕傲. 明日報, 陳昭如專欄, <不是民族英雄, 更不是民族狗熊——臺灣海峽兩國對高行健的評價>(2001.2.10)

50) 表示政治和文學一樣, 應拋開主義, 拋開意識形態之爭, 包括處理兩岸問題, 也應如此. 新聞剪貼, <陳水扁贊高行健能堅持理念>

보편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臺北시 문화국장이며 문학가인 龍應臺가 앞장선 高行健 초청행사는 문화적 변방에 속하던 臺灣이 어떤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맞물려 있다. 특히 2001년 2월 3일의 강연은 華文문학의 비전에 관한 것으로 臺灣의 문학이 지역성과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어 달라는 주최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華文문학의 나아갈 길과 가능성에 대한 언급과 관련하여 高行健은 시종 난색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강연은 시종일관 ‘개인의 문학’에 대한 주장과 설명으로 진행되었다.<sup>51)</sup> 華文 문학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중국 민족문학의 세계화라는 명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극단적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高行健의 평소생각들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강연의 내용은 제목과 너무나 먼 것이었다.

그가 말해야 하는 것은 집체적이고 민족적인 華文문학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가 믿는 것은 개별적이고 자기 주체적인 문학이었다. 즉 민족성이나 집체성에 미혹되거나, 얽매이거나, 갇히지 말고, 개인의 문학으로 되돌아갈 때 비로소 문학에 비전이 있고, 창작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5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華文문학에 대한 高行健의 강연은 싱가포르 등의 화교 문화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파악된다.

51) 李瑞騰, <臺灣文學創作留下對話空間>

52) 嘴裡他說的是一個集體的, 民族的「華文文學」, 心裡他信的是一個個體的, 自主的文學——不要被民族性與集體性所迷惑, 羈絆, 禁錮, 只有回到個人的文學, 文學才有前景, 創作才有天地.<展望「華文文學」的「前景」? ——對高行健來台首場演講的回應>

## 4. 홍콩 정계와 문화계, 및 기타

홍콩의 반응은 보다 복잡하다. 高行健은 노벨 문학상 수상 직후《明報》와 中文대학 등의 초청으로 홍콩을 방문하여 강연과 연회에 참석하였다. 전체적으로 학계와 언론매체의 반응은 臺灣에 비해 더욱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의 방문이 있던 직후인 2000년 12월에 그의 홍콩 방문과 관련한 학계와 언론의 반응을 수록한 두 권의 단행본이 출판<sup>53)</sup>되었던 점을 주목하면 그 반응의 정도를 여실히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一國兩制 정책의 시험무대이기도 한 홍콩에서는 高行健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나, 그는 정치문제 언급 회피라는 자신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하였다.

반면 홍콩 정부의 반응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바로 그것이었다. 董建華 특구 장관은 高行健의 홍콩 방문과 활동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행사에의 참석을 일체 거절하였다. 臺灣에서 陳水扁 총통, 馬英九 시장, 龍應臺 문화국장 등이 수차에 걸쳐 高行健을 접견하고 연회를 개최하였던 것에 비하면 극단적 냉대였다. 한편 특구 정부의 林煥光 민정사무국 국장 등이 高行健의 中文대학 강연회에 참석하여 홍콩 정부가 그를 냉대한다는 설을 부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林煥光은 강연이 시작된 후 나타났다가 강연이 끝나기 전에 식장을 떠났는데, 이로 인해 홍콩 정부는 언론과 의회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입법회의 의원들은 특별회의까지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중국인에 대한 정부의 접대원칙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일찍이 高行健은 陳立과의 대담을 통해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하였던 중국과 정치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sup>54)</sup> 그것은 문화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하면서 그 대상을

53) 《解讀高行健》(香港: 明報出版社, 2000), 《高行健評說》(香港: 明鏡出版社, 2000)

54) 這種批評又重新讓我回到了一個我原來以為已經告別了的社會和生態環境. 新聞剪

왜곡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름도 그럴듯한 이른 바 토론, 논쟁, 변론이 있을 때마다, 그 명목에 상관없이 나는 늘 토론되고, 비판당하고, 훈계 받고, 판결을 당하는 입장이 된다.<sup>55)</sup>

바로 홍콩에서의 반응이 그러했던 것이다.

대륙 학계와 문학계의 반응은 아직 자세히 언급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만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작가로서 동병상련 때문이었을까? 莫言, 劉心武 등 중국대륙의 문인들은 대부분 高行健의 수상에 기쁨을 표현하는 단순한 반응으로 더 이상의 해석이나 반응을 삼가고 있다. 그것은 적극적 반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余世存, 笑蜀, 摩羅, 余杰 등 젊은 작가들은 中國作家協會에 항의서를 게재하는 한편, 高行健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北京 대학 교수였던 錢理群은 高行健의 문학과 노벨상 수상을 높이 평가하여 당국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錢理群 등의 高行健 평가는 일찍이 그가 주축이 되어 편찬한《百年中國文學經典》에 高行健의 《車站》등을 수록하였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79~89까지의 희극작품으로 는 오직 高行健의 작품만이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王曉明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지도적 학자들은 조급한 의미화보다는 그 문학의 내용과 특징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대륙의 문학가들이나 학자들의 반응은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여 발언의 순위와 방식을 조절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王曉明이 李歐梵 등과의 대담에서 ‘高行健의 노벨상 수상

貼, <高行健訪談全文>

55) 每一次美其名曰所謂討論, 爭鳴, 辯論, 不管是什麼名目, 我總處於被討論, 被批判, 聽訓斥, 等判決的地位。《靈山》(臺北: 聯經, 1990), 427쪽.

은 개인적 문제<sup>56)</sup>일 뿐임을 거듭 강조하는 일반 해도 그렇다. 우리는 여기에서 王曉明의 주장이 그의 학문적 객관성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중국문학의 일반과 연관하여 해석하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파악하기 곤란함을 느낀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석은 유보하기로 한다.

#### IV. 결 론

중국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중국인에게는 가슴속의 ‘한’이었고, 스웨덴 한림원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그리고 2000년 高行健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문학적 차원의 ‘한’과 ‘숙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쟁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측면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민주화 문제, 민족주의의 문제, 중국문화의 보편화 문제 등이 노벨상 수상과 관련하여 집중 제기된 문제였다. 그것은 사실 노벨 문학상 선정이 서구적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중국인에게는 언제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학가 高行健과 그의 문학은 이러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일어날 바로 그 자리, 즉 동양과 서양의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에 高行健의 망명, 개인주의, 서구적 형식, 반도덕주의, 반정치주의 등과 같은 낮은 조건이 더해졌다. 따라서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체로 高行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낮은 상황이 열어주는 새로움을 반기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한 비중국적 내용을 불쾌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인 내부의 다양한 반응들은 결국 요약하자면 서양과 동양의 만남과 충돌에 대한 중국적 반응이라는 주제로 돌아가게 된다. 급

56) 諾貝爾獎授與一個評為認為優秀的作家……但畢竟他們首先考慮的是作家個人的創作。〈高行健獲獎三人談——李歐梵, 王曉明, 陳建華〉《二十一世紀·第六十二》(2000,12)

격한 세계화, 급격한 자본주의화의 문턱에서 중국은 高行健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參考文獻>

- 高行健,《一個人的聖經》(臺北: 聯經, 1999)  
高行健,《靈山》(臺北: 聯經, 1990)  
劉再福,《高行健論》(臺灣: 聯經出版公司, 2004)  
《二十一世紀》, 2000年 12月號(第62期)  
《華夏文摘增刊--高行健獲諾貝爾文學獎特刊》(2000,10,14)第234期  
필자,〈高行健의《一個人的聖經》탐색〉(《중국현대문학》제31호, 2004.12)  
필자,〈高行健의《靈山》〉(《중국어문학》제44집, 2004.12)  
李敏國,〈國家人格和文化人格〉《自由時報》(臺北:自由時報社, 2001.2.10)  
明報出版社,《解讀高行健》(香港: 明報出版社, 2000)  
明鏡出版社,《高行健評說》(香港: 明鏡出版社, 2000)  
陳昭如專欄,〈不是民族英雄, 更不是民族狗熊〉《明日報》(2001.2.10)  
高行健,〈我與宗教的因緣〉  
(white-collar.net/wx\_author/g/gao\_xingjian/039.htm)  
高行健,〈文學與玄學·關於《靈山》〉  
(white-collar.net/wx\_author/g/gao\_xingjian/040.htm)  
高行健,〈我的創作觀〉  
(white-collar.net/wx\_author/g/gao\_xingjian/005.htm)  
高行健,〈文學的理由--高行健瑞典獎壇演講全文〉  
(white-collar.net/wx\_author/g/gao\_xingjian/036.htm)  
〈高行健諾貝爾獎〉  
(daisy.kwangwoon.ac.kr/~hxhan/sor\_cult\_2.htm)

<高行健專題報道>

([www.chinesezone.net/gaodoc02.htm](http://www.chinesezone.net/gaodoc02.htm))

曹長青, <評高行健作品系列>

(<http://caochangqing.com>)

張旭東, <承認的政治>

([www.interwww.intermargins.net/Forum/2001%20Jan-June/Gao%20Xingjian/gx09.htm](http://www.interwww.intermargins.net/Forum/2001%20Jan-June/Gao%20Xingjian/gx09.htm))

夏星, <高行健獲諾貝爾內幕揭秘>

([margins.net/Forum/2001%20Jan-June/Gao%20Xingjian/gx16.htm](http://margins.net/Forum/2001%20Jan-June/Gao%20Xingjian/gx16.htm))

<星島日報溫加華加西版>(2002.9. 25)

([www22.brinkster.com/sltao/wc020925\\_jiangzilong.htm](http://www22.brinkster.com/sltao/wc020925_jiangzilong.htm))

袁曉康, <冷的文學, 熱的作家諾貝爾文學獎得主高行健>

([www.books.tw/2000author](http://www.books.tw/2000author))

張筱雲, <誰有資格得諾貝爾文學獎>

([www.esouth.org/sccid/south/south001025.htm](http://www.esouth.org/sccid/south/south001025.htm))

茉莉, <高行健離諾貝爾理想標準差多遠>

([www.boxun.com/freethinking/wytxt/moli/ml019.htm](http://www.boxun.com/freethinking/wytxt/moli/ml019.htm))

茉莉, <面對瑞典文學院的傑作——一個犯眾怒者的思索>

([www.boxun.com/freethinking/wytxt/moli/ml018.htm](http://www.boxun.com/freethinking/wytxt/moli/ml018.htm))

茉莉 <崔衛平退稿信帶來的啓示>

([www.boxun.com/freethinking/wytxt/moli/index.htm](http://www.boxun.com/freethinking/wytxt/moli/index.htm))

茉莉 <瑞典文學院‘不在乎’諾貝爾遺囑了嗎?>

([www.boxun.com/freethinking/wytxt/moli/ml025.htm](http://www.boxun.com/freethinking/wytxt/moli/ml025.htm))

茉莉, <逃的優美姿勢——評高行健的獲獎演說>

([www.boxun.com/freethinking/wytxt/moli/ml022.htm](http://www.boxun.com/freethinking/wytxt/moli/ml022.htm))

徐友漁, <徐友漁致函崔衛平>《多維周刊》第42期(2001.2)

夏星, <高行健獲諾貝爾文學獎的內幕揭秘>

([intermargins.net/Forum/2001%20Jan-June/Gao%20Xingjian/gx02.htm](http://intermargins.net/Forum/2001%20Jan-June/Gao%20Xingjian/gx02.htm))

夏寧,〈諾貝爾的神話〉

([www.huanghuagang.org/issue03/big5/6\\_4.html](http://www.huanghuagang.org/issue03/big5/6_4.html))

〈馬森教授談高行健〉

([www.ncku.edu.tw/~nckunews/chinese/recent/2000/11/messages/192.html](http://www.ncku.edu.tw/~nckunews/chinese/recent/2000/11/messages/192.html))

丘德真,〈高行健,君子不必自強不息——諾貝爾獎得主的頹廢書寫〉

([asiademo.org/2000/12/20001213a.htm](http://asiademo.org/2000/12/20001213a.htm))

李瑞騰,〈臺灣文學創作留下對話空間〉

([www.libertytimes.com/2001/new/feb/4/life/article-2.htm](http://www.libertytimes.com/2001/new/feb/4/life/article-2.htm))

〈展望「華文文學」的「前景」?——對高行健來台首場演講的回應〉

([hinet.net/home2/sunmoonstar/cria\\_3.htm](http://hinet.net/home2/sunmoonstar/cria_3.htm))

〈諾貝爾文學獎對中國很重要嗎?〉

([people.com.cn/BIG5/wenhua/27296/2916685.html](http://people.com.cn/BIG5/wenhua/27296/2916685.html))

### 〈中文提要〉

二〇〇二年法籍中文作家高行健得諾貝爾獎，對於華文世界來說，是一種世紀的大事。但因為高行健離開中國國界，已成為歐洲異邦人，因此華文世界引起多種多樣的反應。其反應或解釋的主要特徵是濃厚的政治性。此文章整理探討其各不相同的多樣反應的內容與特徵。中國當局與官方團體採取了模稜兩可的態度。則他們一方面批判諾貝爾獎委員會的決定，但另一方面表示祝賀的意思，可以說明罵暗迎。此為何故？他們雖然不太滿足高行健得獎，但他們一方面安心他不是民主人士的代表。海外民主人士的反應有一些差別。首先劉再復等著名學者和王丹等民主人士表示歡迎並祝賀的意思。但茉莉曹長青等年青六四世代激烈地批判高行健的得獎。他們以為像高行健這樣的逃避主義兼極端個人主義者得諾貝爾獎，會影響到中國民主化運動的積極推廣。這大概是他們批判高行健得諾獎的緣故。臺灣政治人和文化界人士對於高行健得獎表示無限高

與無限祝賀的意思，在此特別指出的是臺灣總統陳水扁的態度。高行健一直主張拋棄意識形態的包袱，而陳水扁認為高的主張和他的臺獨主張有密切聯關，表示極大的贊同，並要求中國政府也和高行健一樣，超越意識形態之爭，創立兩岸的和平條件。臺灣文學界人士，希望借此高行健得獎的機會，推廣華文文學的世界化。香港的反應有一些不一樣，政治界考慮與大陸的關係，對高行健的得獎並不表示什麼肯定的態度。而文化界極高地讚揚高行健得諾獎大事。

주제어 : 高行健, 諾貝爾文學獎, 中國的反應, 臺灣的反應, 香港的反應, 海外民主人士的反應, 意識形態超越, 華文文學

K C I